

##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요인 탐색: 청소년기 학업우수자를 중심으로\*

손진희†

선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때 학업우수자였던 여자 대학생들이 진로관련 결정을 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과 진로선택 시 경험하는 어려움(제한요인)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5명의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면접을 하였고, 진로결정 시 고려하는 요인 67개, 진로선택 제한요인 38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아이디어를 다시 12명의 참여자들이 분류와 평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개념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은 진로결정 고려요인과 제한요인을 모두 '타인지향(수동)-자기지향(능동)', '직업의 외적조건-내적조건'이라는 2가지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 바탕을 두고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은 진로결정 시 고려요인은 10개, 진로선택 제한요인은 7개의 군집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진로결정 고려요인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감에 대한 평정 점수는 '개인내적 특성과 매칭', '높은 성취와 자아실현 추구' 군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선택 제한요인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정 점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기대' 군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우수 여자대학생<sup>1)</sup>, 진로결정과정 요인, 진로결정 고려요인, 진로결정 제한요인, 개념도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27-B00553)

† 교신저자 : 손진희, 선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 충남 아산시 당정면 갈산리 100

Tel : 041-530-2563, E-mail : windsjh@sunmoon.ac.kr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학업우수 여자대학생' 용어는 용어 사용의 편의상 '청소년기 학업우수자였던 여자대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함. 학업우수 여자대학생 선발 기준은 '방법'에 제시함.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진로발달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여성들이 경험하는 진로문제를 조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영재 여성에 대한 Terman(1925)의 연구 이래로 학업이 우수한 여성들이 높은 지적능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진로 포부수준을 보이거나 성취 미달자가 되는 현상 등이 많이 조명되어 왔다(Arnold, 1993; Garrison, 1993; Kaufman, 1981; Kerr & Sodano, 2003; Kline & Short, 1991). 사회적으로 우수 인적자원의 활용이 제한된다는 측면과 개인적인 발달이 저해된다는 측면에서 우수 여성의 진로발달 문제는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우수 여성들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우수 남성과는 다른 진로발달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nold, 1993; Kerr & Sodano, 2003). 청소년기에 이르면 우수 여학생들이 포부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생기는데(Kerr, 1983; Kerr & Sodano, 2003) 성역할 갈등이 주된 원인이었다(Betz & Fitzgerald, 1987; Gassin, Kelly, & Feldhusen, 1993). 청소년기에 낮아진 우수 여성의 진로포부는 이들이 명성이 높은 교육수준으로 진출하거나 상위의 진로기회로 나아가게 하는 도전의식을 약화시켰다(Leung, Conoley, & Scheel, 1994). 예컨대, 대학 입학 시에 포부수준이 높았던 우수 여성도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이나 더 높은 지위에 도전하지 않으려 하였으며(Garrison, 1993; Grant, Battle, & Heggoy, 2000; Kline & Short, 1991), 과학계통의 진로를 회피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Ceci, Williams, & Barnett, 2009).

이렇듯 외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우수 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우수 여성의 진로 발달 모습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축적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수 여성의 진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양희, 2008; 박승리, 2006; 박유정, 2007; 박은혜, 2006; 이아라, 2006; 이항심, 2007; 하정, 2007; 황도연, 2008). 비록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최근들어 우수 여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우수 여성의 진로발달의 이해하는 이론적 측면에서나 이들을 실제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들이 대부분 제한된 변인에 대한 양적인 방법론을 주로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도 주로 청소년에 편중되어 있어 아직 우수 여성의 진로발달에 대한 종단적 이해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이나 성인 우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대학생 시기는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문제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 막연히 생각하던 진로를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고려하게 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시기에 학업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권석만, 정지현, 2007; 심재영, 박은영, 2003; 이기학, 이경아, 유나현, 2007), 학업 우수 대학생들도 대학에서 다양한 진로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Kerr와 Erb(1991)는 영재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 목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학업우수자 중에서도 특히 우수 여자대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면서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각하게 됨에 따라 남학생보다 더 많은 진로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우수한 여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남학생보다 더 많은 혼란과 진로미결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rant et al., 2000; Schroer & Dorn, 1986), 실제의 수행 결과나 능력에 상관없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지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Arnold, 1993; Arnold & Denny, 1985; Perrone et al., 2007). 대학 시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시기에 우수 여자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조사, 연구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21세기 우수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국내 학업우수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 중 하나는 진로포부이다(예: 김양희, 2008; 박승리, 2006; 이아라, 2006; 황도연, 2008). 외국의 연구들이 청소년기에 이른 우수 여학생들의 진로포부 수준이 남학생보다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는 않다. 청소년기에 포부가 저하된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와 달리 학업우수 여자청소년의 진로포부 수준은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김양희, 2008), 초·중 때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포부수준을 나타냈지만 고등학교 때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초·중·고를 거치면서는 진로포부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박은혜, 2006). 이런 차이를 나타낸 이유로는 첫째,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둘째,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 10여 년 전 이전의 연구들이 많았

기 때문일 수 있고 셋째, 질적인 연구방법론과 양적인 연구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우수 여성들의 직업성취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에도 아직 이들의 진로발달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빈약한 실정이므로(하정, 2007) 우리나라 우수 여성들의 진로발달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우수 여성들의 심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에서 우수 여성의 진로문제를 조명하는 움직임은 최근의 일이다. 그것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인 연구방법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 다양한 방법론이나 연구주제, 나아가 연구대상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하정(2007)은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해 직업결정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내용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에 대한 이해를 세밀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 우수 여성에 대한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다면 학업우수 여성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종단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업우수 여자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관련 결정을 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과 어려움의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들의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적과 학벌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경우와는 다른 독특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용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 우수 여자대학생들은 진로선택에 능력이나 학업수행보다는 생애역할 기대와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Arnold, 1993; Grant et al., 2000; Vermeulen & Minor, 1998), 정보, 타인의 기대 맞추기, 장벽들, 능력감, 일의 조건들, 개인적 가치들도 영향요인으로 거론되었다(Vermeulen & Minor, 1998). 하정(2007)의 연구에서는 결정의 내적동기 수준, 학업성취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가치관 형성, 성차별경험(성역할 사회화), 부모의 지원과 기대, 직업흥미, 직업모델, 진로장벽, 자아탄력성, 진로정보, 부모의 선호와 관여, 내적 조절과 수용, 자율성 발달 등이 진로결정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에도 이런 요인들이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수 여성에 대한 특징적인 진로 발달 모습을 이론화하는데 기여하고 우수 여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발견지향적인 연구 자세를 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인식에 다가가기 위해 질적인 방법과 수량적인 방법이 결합된 개념도(Concept Mapping)를 사용할 것이다. 개념도는 연구자의 신념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들 자신들의 관점에 근거를 둔 자료를 조직화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Gol & Cook, 2004). 본 연구는 학업성적이 대학진학으로 연결만 되면 그만이라는 우리나라 진학지도가 진로지도인 현 상황에서 학업우수 여자 대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경험하는 진로문제를 그들의 관

점에서 들여다보는 일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로결정과정과정에 관계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대학에서 우수 여성에 대한 진로문제를 조력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구안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때 학업우수자였던 여자대학생이 진로결정 시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기 때 학업우수자였던 여자대학생이 진로결정 시 경험하는 어려움의 요인은 무엇인가?

## 방 법

###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교 때 학업우수자였고 면접 당시 3학년 이상의 여자대학생이다. 본 연구의 관심이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요인을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진로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학 3학년생 이상으로 하였다. 고교 때 학업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해 학업우수 고교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하는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학업우수 기준은 대학성적 평점 3.0 이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이거나, 일반고 출신의 경우 언어/수학/외국어 과목의 내신 성적이 최소한 1.5등급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섭외 절차는 서울에 있는 2개 대학과 지방 소재 1개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와 직원을 통해 연구목적과 연구 참여 조건을 설명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학생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방법으

로 일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에 선정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2차적으로 추천받아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계열이나 전공이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하였다. 1단계 면접과정에 참여한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은 모두 15명이었고, 이들의 학년은 3학년 11명, 4학년 4명이었다. 이 중 2단계 카드 분류까지 모두 참여한 학생은 15명 중 12명이었다. 참여자 인원수는 Kane과 Trochim(2006)의 제안을 따랐는데, 이들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를 최소 10명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평균  $M=21.20$ 세( $SD=1.57$ )였고, 이공계열이 7명, 문과계열이 8명이었다. 출신 고교는 외고출신이 4명, 과학고출신은 6명, 일반고는 5명이었다. 입학전형 방법은 수시특별전형 입시가 6명, 수시일반이 2명, 정시가 7명이었고, 대학입학 당시 고교 내신 성적은 언어/수학/영어 평균성적이 1등급 9명, 1.5등급 이내가 3명, 3명은 무응답을 했는데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최상위 성적을 보였다. 현재 대학에서의 평점은 4.0 이상이 6명, 3.5-4.0 미만은 7명, 3.0-3.5 미만이 2명으로 전체적으로 B학점 이상의 좋은 성적이었다. 대학입시 성적 산출은 학교마다 다양하였고, 수시 특별전형 입학생은 수능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의 점수 확인은 어려웠다. 참여자의 최근 진로결정 시기는 고교 때가 4명, 재수 1명, 대학에 와서 결정한 학생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업우수 여자 대학생이 진

로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요인들을 개념도 (concept mapping)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념도는 특정한 현상에 내재해있는 구조를 탐색하고 기술하기 위한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의 한 유형으로, 연구자의 신념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 자신들의 관점에 근거를 둔 자료를 조직화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Gol & Cook, 2004).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방법을 개발한 Kane과 Trochim(2007)의 개념도 연구과정을 따랐다. 즉, 브레인스토밍, 진술분석과 통합, 진술 분류, 다차원척도와 군집분석, 지도생성과 자료 도형화 과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첫 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초점질문인 연구 질문을 산출하고 연구대상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들을 어떻게 연구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 동의서와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우수 여자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표현해낼 초점질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현재 장차 갖게 될 진로(직업)를 결정하셨나요? 만약 진로를 결정했다면 가장 최근 진로 결정 경험을 회상하시며 답변해주시시오. 혹은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민되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요인들을 고려했는지(영향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가능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외부의 어떤 요인 등의 영향 혹은 경험, 사건, 사람 등). 또한 지금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주는(장애, 걸림돌) 요인들은 무엇입니까(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습

니까?)”

아이디어 산출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세계를 보다 풍부히 알아보기 위해 일대일 면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여자 대학생들을 일대일로 연락하여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전달하고 연구 참여의사를 직접 재확인하였다. 면담 일정을 개인별로 정해서 하였는데, 면담에는 연구자를 비롯하여, 상담관련 전공 박사과정 2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 보조자는 상담관련 분야에서 여러 해 직접 상담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면접을 수행하는 요건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풍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진은 초점질문과 기타 연구진행과 관련해서 자유토론을 하고 질문방향의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 그 다음에, 연구보조자 한 명이 먼저 연구 참여자와 만나 면접을 하였고, 면접 직후 바로 면접내용을 전사해서 회의를 하고 면접과정에서 대한 재검토와 효과적인 질문방식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면담원칙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연구 참여자가 반응을 하도록 하되, 보다 촉진적인 반응을 돕는 반영이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각자 면담을 하면서 개인별로 2-3명의 면담내용을 바로 축약으로 만들어서 검토하도록 하였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하였고, 필요할 시 새로운 지침을 주었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되었고 면담시간은 대체적으로 50-7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전체 면담일정은 2009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였다. 녹음자료는 모두 전사되었고, 전사된 자료에서 아이디어 추출을

하였다. 아이디어 추출은 연구자, 연구보조자 2명이 진로결정과정 고려요인과 어려움의 요인(이하 제한요인이라는 용어로도 함께 표기함)에 대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모두 5차례에 걸친 미팅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진로결정 고려요인은 총 437개의 아이디어로 추출되었고 제한요인은 149개의 아이디어로 추출되었다. 그 다음은 추출된 전체 아이디어를 분류 가능하도록 종합, 편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된 아이디어는 원자료 아이디어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통합된 아이디어 표현이 원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담관련 전공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원자료를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2점, 보통이면 1점,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면 0점을 주게 해서 0점을 받은 것은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1개의 표현이 다른 아이디어로 재분류되었고, 표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재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진로결정과정 고려요인은 67개, 진로결정시 어려움을 주는 요인 38개의 아이디어가 산출되었다.

그 다음은 진술문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모든 진술문을 카드로 만들어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류를 하게 하였고, 각각 자신이 공감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우선 67개, 38개의 진술문을 모두 색카드로 만들어서 연구 참여자들이 쉽게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카드 분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연구 협조를 받았는데 섭외 시 분류 협조를 받은 상황이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흔쾌히 협조를 하였다. 다만, 최초 면담 후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참여자들의 신상 변동이 몇

명 있었다. 외국 연수 2명, 1명은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내오지 않아 모두 12명만이 분류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 카드를 전달받아 분류를 한 참여자는 10명이었고, 개인 사정으로 대면하지 못한 2명에게는 이메일로 자료를 전달하였다. 이메일 자료로 전달한 경우는 메일 확인 전화를 하고, 분류 방법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재점검하였다. 카드 분류방법은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고, 67개, 38개의 진술문 모두를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비슷한 카드끼리 묶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이 분류한 파일에 대해 이름을 명명하도록 하였고, 각각의 진술문에 대해 자신의 경우 얼마나 공감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과정으로 개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개인별로 분류된 결과는 같은 집단으로 묶여진 진술문에는 1, 다른 집단에 묶여진 진술문들은 0으로 코딩하여 개인별로 67\*67, 38\*38 유사성 행렬표(Similarity Matrix)를 2개 만들었고, 12개의 개인별 유사성 행렬표는 다시 합쳐서 집단유사성 행렬표(GSM: Group Similarity Matrix)로 재구성하였다. 이 집단유사성 행렬표는 SPSS 15.0을 활용해서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의 원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다음은 다차원 척도법에서 산출한  $x, y$  좌표값을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의 자료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각의 진술문이 자신에게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정한 자료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결 과

### 학업우수 여자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고려 요인

총 67개의 진술문에 대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 자료는 다차원 척도분석에 활용되었고, 다차원분석 결과는 다시 군집분석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다차원 척도법은 각 진술문들이 함께 분류된 빈도를 바탕으로 일련의 진술문들의 잠재적인 구조를 공간상에 표현해준다(Kruskal & Wish, 1978). 67\*67 행렬표에 대한 다차원 척도법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합치도 지수인 stress값은 2차원 해법으로 .127로 나타났다.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산출된 stress 값의 평균은 .285로 나타났다(Trochim, 1993, Kane & Trochim, 2007에서 재인용), 약 95%의 연구에서 stress 값은 약 .205-.365로 나타난 바, 본 연구에서 산출된 stress 값은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 분석에 적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차원 해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지만, 개념도 분석에서는 차원의 결정에 초점을 덜 주며(Goodyear et al., 2005; Kane & Trochim, 2007)) 군집분석을 활용하는 이런 분석에는 2차원 해법이 추천된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7; Kruskal & Wish, 1978).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 도출된 진술문의 좌표값을 군집분석을 위한 자료로 투입해서 위계적 군집분석, 유클리디안 거리와 Ward 연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Goodyear et al., 2005; Kane & Trochim, 2007). 이 방법은 산출된 군집 수와 상관이 없이 지도상에 겹치지 않는 구역을 만들어준다(Kane & Trochim, 2007). 최종적인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해 Gol

표 1.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고려요인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예

군집명 진술문 예	M	SD
<b>1. 개인내적 특성과 매칭</b>	<b>4.30</b>	<b>.60</b>
나의 적성을 고려	4.58	.51
자신의 성격(스타일, 특성)에 맞춤	4.50	.52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	4.33	.89
나의 가치관과 부합	4.08	1.16
공부하는 것을 좋아함	4.00	.95
<b>2. 높은 성취와 자아실현 추구</b>	<b>4.19</b>	<b>.61</b>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음	4.42	.67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	4.41	.79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음	4.33	.78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음	4.33	.78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음	4.33	.89
<b>3.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학업 효능감</b>	<b>3.69</b>	<b>.55</b>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자신감	4.50	.67
그 분야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부족함)이 있음	4.42	.67
공부에 자신이 있음	3.75	1.22
타 전공 수업을 통해 흥미가 유발됨	3.58	1.16
전공수업을 통해 흥미가 강화됨	3.50	1.24
<b>4.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정 추구</b>	<b>3.62</b>	<b>.59</b>
내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전문직임	4.50	1.31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4.42	1.00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음	4.25	1.06
명예나 존경을 얻을 수 있음	4.17	.94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짐	3.92	1.16
<b>5. 직업의 자율성과 도전가능성</b>	<b>3.36</b>	<b>.87</b>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음	3.67	.98
새로운 것 추구 가능성 여부	3.33	1.23
도전이나 모험가능 여부	3.08	1.44
<b>6. 타인의 지지, 격려 및 정보제공</b>	<b>3.28</b>	<b>.70</b>
부모님의 심리적, 경제적 지지와 격려	4.17	.83
친구 및 다른 사람들의 지지 와 격려	3.92	.90
부모님의 조언, 권유 및 정보제공	3.92	.90
친구, 선배, 및 다른 정보원들로부터 조언 및 정보제공	3.92	1.08
준거집단(주위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로의 종류나 수준에 대한 영향	3.67	.98



표 1.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고려요인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예 (계속)

군집명 진술문 예	M	SD
<b>7.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조건과 전망</b>	<b>3.23</b>	<b>.50</b>
미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	4.00	1.04
직업에 대한 현실적(임금, 일의 조건, 환경)인 여건이나 실상을 파악함	3.75	1.06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3.75	1.36
여성으로서 갖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진로에 진입하기 위한 전단계의 과정	3.25	1.36
타지(유학, 외국생활, 타지근무 등)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됨	3.17	1.34
<b>8. 관심분야에 대한 직·간접 경험</b>	<b>3.01</b>	<b>.37</b>
전공과 관심분야를 실제로 접하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님을 알게 됨	3.67	.98
기존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임	3.58	1.00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신문이나 책의 영향	3.33	1.30
다양한 체험(인턴, 교환학생,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면서 재미와 자신감을 갖게 됨	3.33	1.56
이제까지 해온 공부를 포기하기가 아깝고 특별한 대안이 없음	2.33	1.23
<b>9. 관심분야 여건과 진로투자 부담</b>	<b>2.98</b>	<b>.73</b>
인간관계(다양한 관계추구나 회피 등)를 고려함	3.33	1.15
관심분야를 공부(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투자에 대한 부담감	3.17	1.03
관심 전공의 여건(학교에서의 지원, 교과과정, 수준 등)을 고려함	3.17	1.34
공부(유학, 고시준비 등)하는데 경제력이 부족	2.25	1.22
<b>10. 주위사람과의 관계와 평판</b>	<b>2.25</b>	<b>.71</b>
부모님의 반대	2.33	1.15
전공을 바꾸는 것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의식	2.33	1.37
이성친구와 미래 관계를 고려함	2.08	1.31

과 Cook(2004), Goodyear 등(2005), Kane과 Trochim(2007) 등이 제안한 방법을 따랐다. 우선 군집분석 결과 도출된 덴더그램(dendogram)을 일차적으로 활용하여, 사용 및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이 분류한 군집 수 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이 분류한 군집은 6개에서 17개까지, 평균 10.0( $SD=3.62$ )개로 나타났다. 셋째, 개념적 명

료성을 위해서, 군집 내에 있는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군집 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군집 내 진술문과 군집 간 진술문들을 검토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군집 간 차별성과 군집 내 유사성을 보여주는 진술문들로 된 10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질적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도출한 바, 참여자들이 진로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의 다양성을 보다 풍부하게 보여주는 것이 질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표 1은 학업우수 여학생들의 진로결정 고려 요인에 대한 10개의 군집과 각 군집에 속한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진술문들이다. 10개의 군집은 ‘개인내적 특성과 매칭’, ‘높은 성취와 자아실현 추구’,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학업효능감’,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정 추구’, ‘직업의 자율성과 도전가능성’, ‘타인의 지지, 격려 및 정보제공’,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조건 및 전망’, ‘관심분야의 직간접 경험’, ‘관심분야의 여건과 진로투자 부담’, ‘주위사람과의 관계와 평판’ 등으로 나타났다. 표 1에 제시된 순서는 참여자들이 각 진술문들에 대해 평정한 평균이 가장 높은 군집 순이다.

참여자 평정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군집은 ‘개인내적 특성과 매칭’( $M=4.30$ ,  $SD=.60$ ), ‘높은 성취 및 자아실현 추구’( $M=4.19$ ,  $SD=.61$ ),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학업효능감’( $M=3.69$ ,  $SD=.55$ )으로 나타났다. 이 군집들에 포함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장 높게 공감한다고 평정한 구체적인 진술문은 ‘나의 적성을 고려’( $M=4.58$ ,  $SD=.51$ ), ‘자신의 성격(스타일, 특성)에 맞음’( $M=4.50$ ,  $SD=.52$ ),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자신감’( $M=4.50$ ,  $SD=.67$ ) 등이었다. 참여자들이 공감한다고 평정한 점수가 대체적으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4점 이상으로 나와 매우 높은 공감을 보였다.

가장 낮은 평정을 받은 군집은 ‘주위사람과의 관계와 평판’( $M=2.25$ ,  $SD=.71$ ), ‘관심분야의 여건과 진로투자 부담’( $M=2.98$ ,  $SD=.73$ ), ‘관심분야의 직·간접 경험’( $M=3.01$ ,  $SD=.37$ )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구체적인 진술문

들은 ‘전공 및 관심분야의 성적이 잘 안 나옴’( $M=1.83$ ,  $SD=.83$ ), ‘결혼하는 데 걸림돌이 됨’( $M=2.08$ ,  $SD=1.24$ ), ‘이성친구와 미래 관계를 고려함’( $M=2.08$ ,  $SD=1.31$ ), ‘공부(유학, 고시준비 등) 하는데 경제력이 부족함 등을 고려’( $M=3.33$ ,  $SD=1.15$ ) 등의 진술문이었다. 그 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군집들로는 ‘직업의 자율성과 도전가능성’( $M=3.36$ ,  $SD=.87$ ), ‘타인의 지지, 격려 및 정보제공’( $M=3.28$ ,  $SD=.70$ ),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조건과 전망’( $M=3.23$ ,  $SD=.50$ ) 등이 추출되었으며, 이런 군집들에 참여자들은 보통 이상으로 공감한다는 평정 점수를 보였다.

그림 1은 10개의 군집 결과에 대한 개념도이다. 개념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차원의 인식이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사회에서 부여하는 직업에 대한 외적조건과 같은 자기 외부의 요인을 고려하는가, 아니면 자기내적 특성이나 자질과 관련된 것들을 고려하는가와 같은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왼쪽에 있는 군집들은 타인들이 진로결정에 주는 영향들과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인 진술문 예는 ‘부모님의 심리적, 경제적 지지와 격려’, ‘전공을 바꾸는 것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의식’, ‘부모님의 반대’, ‘전공을 바꾸는 것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의식’,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신문이나 책의 영향’ 등과 같은 요인들이다. 오른쪽에 있는 군집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등 내적인 특성을 고려하거나 참여자 자신이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군집들로 이루어져있다. 구체적인 진술문의 예로는 ‘나의 적성을 고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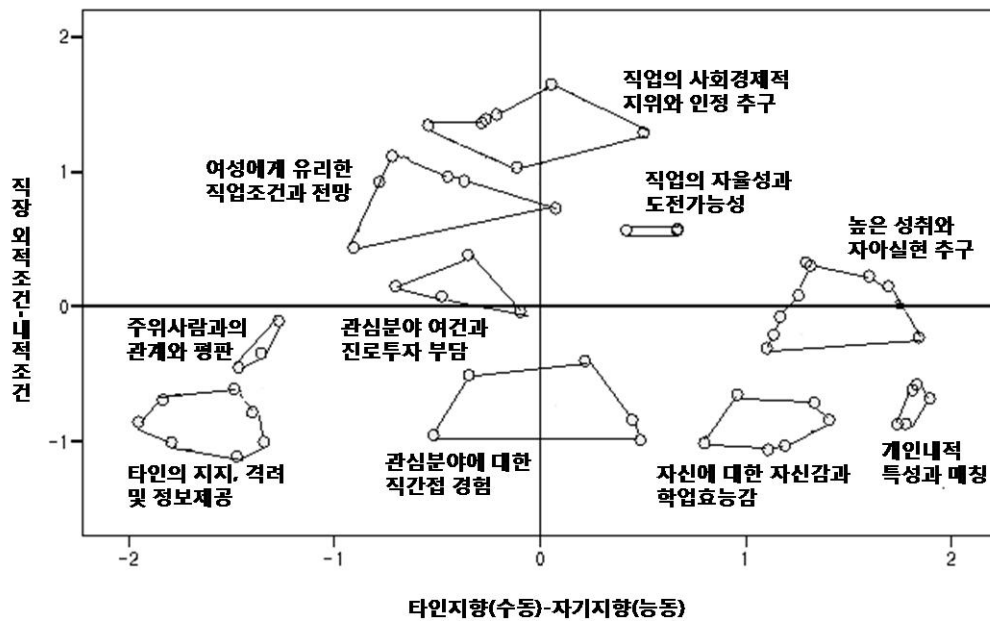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 고려요인 개념도

아실현을 할 수 있음’,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자신감’,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음’ 등과 같은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이 차원은 ‘타인지향(수동)-자기지향(능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개념도의 두 번째 차원은 개념도의 상하에 걸쳐 표현된 것으로 ‘직업의 외적조건-내적조건’으로 명명될 수 있어 보인다. 개념도의 상위영역은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이 직업이 갖고 있는 외적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진술문의 예를 보면 ‘미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 ‘직업에 대한 현실적(임금, 일의 조건, 환경 등)인 여건이나 실상을 파악함’,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전문직’,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음’ 등과 같은 요인들이 근거리로 위치해 있다. 하위 영역은 직업에 대해 자신이 갖추고 있는 조건과 진술문들로 명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과 관심분야를 실제로 접하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님을 알게 됨’,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임’, ‘준거집단(주위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로의 종류나 수준에 대한 영향’, ‘나의 적성을 고려’, ‘성취감을 낄 수 있음’과 같은 요인들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학업우수 여자 대학생의 진로결정 제한요인**

총 38개의 진술문에 대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 자료는 다차원 척도분석에 활용되었고, 다차원분석 결과는 다시 군집분석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38\*38 행렬표에 대한 다차원 척도법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합치도 지수인 stress값은 2차원 해법으로 .171로 나타나, 진로결정 고려요인과 마찬가지로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에 적합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다음에 다차원 척도법에서 도출된 좌표값을 군집분석에

표 2. 학업우수여자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결정 제한요인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예

군집명 진술문(예)	M	SD
<b>1. 실패에 대한 두려움</b>	<b>2.95</b>	<b>.37</b>
완벽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4.08	1.00
적성에 맞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	3.33	.98
스스로 진로탐색을 해야 하는 어려움	3.17	1.47
성격에 맞지 않음	2.92	1.08
<b>2. 타인의 기대</b>	<b>2.77</b>	<b>.90</b>
부모님에게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3.33	1.15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	3.25	1.06
장녀(딸)로서 잘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3.25	1.42
타인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	3.09	1.45
<b>3. 능력부족에 대한 두려움</b>	<b>2.77</b>	<b>.70</b>
자기 노력만으로는 안될 것 같은 두려움	3.17	1.27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위로 될 것 같은 불안	3.00	1.21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2.50	1.00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없음	2.42	1.00
<b>4. 직장과 결혼생활의 병행 어려움</b>	<b>2.75</b>	<b>.75</b>
결혼생활과 병행이 어려움	3.08	1.16
경제적 보상이 적음	3.00	1.28
직장에서 성차별에 대한 걱정	2.92	1.31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됨	2.00	.95
<b>5. 불확실한 직업전망</b>	<b>2.67</b>	<b>.82</b>
진출해야 하는 분야가 삶의 여유가 없음	3.17	1.59
관심분야에 대한 실상 파악	3.08	1.16
관심분야에 대한 실상을 알고 실망	2.83	1.40
전공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직업 진입이 어려움	2.17	1.19
<b>6. 진로투자 부담과 흥미부족</b>	<b>2.56</b>	<b>.64</b>
관심분야를 공부(준비)하는데 드는 시간 투자에 대한 부담감	2.83	1.19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	2.25	.97
관심분야를 직접 경험하면서 흥미를 못 느낌	2.58	1.08
평생 직업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	2.58	1.24
<b>7. 진로결정 압박과 선택의 어려움</b>	<b>2.53</b>	<b>.72</b>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	3.58	1.16
관심분야가 다양해서 선택이 어려움	2.83	1.64
평범한 것에 대한 불안	2.42	1.51
경제적 여력이 부족함	2.08	1.08

투입해서 7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참여자들이 유사 진술문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은 개수는 최저 5개에서 최고 9개로 나타났고, 평균 군집 수는 7.17( $SD=1.90$ )개로 나타났다.

표 2는 학업우수 여학생들이 진로결정시 경험하는 어려움 요인에 대한 7개의 군집과 각 군집에 속한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진술문이다. 7개 군집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기대’, ‘능력부족에 대한 두려움’, ‘직장과 결혼생활의 병행 어려움’, ‘불확실한 직업전망’, ‘진로투자 부담과 흥미부족’, ‘진로결정 압박과 선택상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순서는 참여자들이 각 진술문들에 대해 평정한 평균이 가장 높은 군집 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자아평정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군집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 $M=2.95$ ,  $SD=.37$ ), ‘타인의 기대’( $M=2.77$ ,  $SD=.90$ )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아평정 점

수를 받은 군집은 ‘진로결정 압박과 선택상의 어려움’( $M=2.53$ ,  $SD=.72$ ), ‘진로투자 부담과 흥미 부족’( $M=2.56$ ,  $SD=.64$ )이었다. 참여자들이 가장 높게 자신과 일치한다고 평정한 구체적인 진술문은 ‘완벽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M=4.08$ ,  $SD=1.00$ ), ‘부모님에게 보답을 해야 하는 부담감’( $M=3.33$ ,  $SD=1.15$ ), ‘적성에 맞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 $M=3.33$ ,  $SD=.98$ ), ‘장녀(딸)로서 잘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M=3.25$ ,  $SD=1.42$ ) 등으로 나타났다. 진로 선택 시 겪는 어려움 요인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진술문은 ‘친구들보다 나이가 더 많음’( $M=1.33$ ,  $SD=.89$ ),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한 부모님의 강요’( $M=1.67$ ,  $SD=.78$ ), ‘결혼하는 데 걸림돌이 됨’( $M=2.00$ ,  $SD=.95$ ) 등이었다.

그림 2는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이 진로선택 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7개의 군집 결과에 대한 개념도이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개념도도 두 가지 차원의 인식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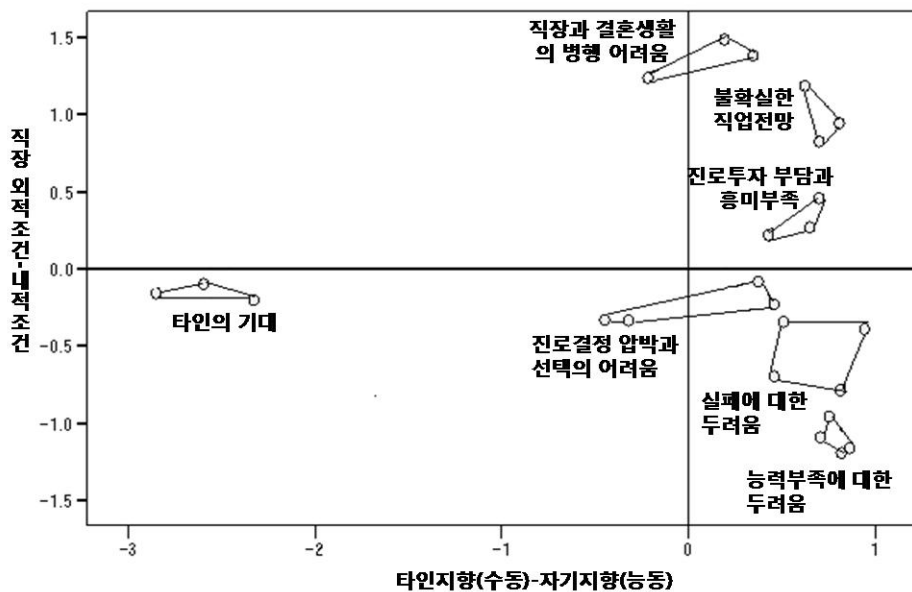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 제한요인 개념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과 관련된다고 생각 하는 차원은 개념도 좌우로 구분해서 볼 때 ‘타인지향(수동)-자기지향(능동)’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왼쪽에 있는 군집들은 진로결정을 하는 데 타인들이 주는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진술문과 관련되고 대표적으로 군집 ‘타인의 기대 부응에 대한 부담’ 하나의 군집만이 여기에 해당되었다(구체적 진술문 예: ‘부모님에게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장녀(딸)로서 잘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 등). 오른쪽 영역에 대부분 의 군집들이 있었는데, 군집들의 특성은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개인내적인 요인들 때문에 진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항목들이 위치해 있다(구체적 진술문 예: ‘완벽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자기 노력만이 개념으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등). 개념도의 두 번째 차원은 상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상위 영역은 직업이 갖고 있는 불리한 외적조건과 관련되어 보이고(구체적 진술문 예: ‘결혼생활과 병행 어려움’, ‘관심분야에 대한 실상 파악’ 등), 하위 영역은 직업에 대해 내적으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과 관련된 군집들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타인의 기대’, ‘실패에 대한 불안감’, ‘능력부족에 대한 두려움’ 등). 두 번째 차원 역시 ‘직업의 외적조건-내적조건’으로 명명해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때 학업우수였던 여학

생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요인과 제한을 주는 요인을 참여 학생들 입장에서 파악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인식차원을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학업우수 여학생으로 현재 대학생이 된 여자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여 진로결정과정을 할 때 고려하는 요인 총 67, 제한요인 38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은 다시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류를 부탁하고 각 진술문에 공감하는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분류 결과를 토대로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각 연구 질문에 대해 2차원, 10개와 7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개념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주요 논의와 제언, 그리고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결과 청소년기 학업우수 여자 대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였다.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정도로 평정한 순서에 의하면 ‘개인내적 특성과 매칭’, ‘높은 성취 및 자아실현 추구’,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학업효능감’, ‘직업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인정 추구’, ‘직업의 자율성과 도전가능성’, ‘타인의 지지, 격려 및 정보제공’,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조건과 전망’, ‘관심분야의 직간접 경험’, ‘관심분야 여건과 진로투자 부담’, ‘주위사람과의 관계와 평판’ 등의 순으로 대별되었다. 또한 이런 군집은 ‘타인지향(수동)-자기지향(능동)’ 차원과 ‘직업의 외적조건-직업에 대한 개인조건’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거론되었으며 자신과 가장 많이 공감한다고 보고된 군집내용

은 적성이나 성격과 같은 자신의 내적 특성과 부합 여부, 높은 성취를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학업능력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해서 진로를 결정한다는 요인이었다. 이런 요인들은 개념도에서 자기지향(능동) 차원과 관련된 영역에 속하였다. 즉,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은 학업이나 자신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적인 특성이나 내적가치 등을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려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 청소년이나 영재 성인들에 대한 연구(하정, 2007; Jacobsen, 1999; Perrone et al., 2007)에서 나타난 우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들이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의 중심현상을 ‘자기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이라고 명명하고 전체적인 직업결정과정을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로 개념화한 것(하정, 2007)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영재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동기화 수준과 인내심이 높으며(Jacobsen, 1999), 영재라는 사실이 자신감을 높여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 증진과 최선을 다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Perrone et al., 2007)는 결과와도 비슷하다. 청소년기에 가졌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높은 성취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모습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에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Kerr와 Erb(1991)는 우수 학생들이 자신들의 여러 능력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통합하기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진로상담자들은 이런 우수 대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목표의식을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업우수 여자 대학생들은 대학에

와서도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에서 가졌던 진로포부와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정(2007)의 연구에 참여한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에 대한 선호를 많이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우수 여대생의 경우에도 ‘높은 사회적 지위와 인정 추구’가 주요 결정요인이었고 평정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학업우수 여자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진로포부는 시간에 걸쳐 안정되어 나타났었다(김양희, 2008). 하지만 박은혜(2006)의 연구에서는 초·중·고 학교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학업우수 청소년의 포부수준이 높아졌고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높은 지위를 갖는 직업위주의 진로선택이 나타난 바 있어, 대학 때 오히려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이루어져야겠지만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경우 대학생이 되어서도 포부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이런 결과는 학업우수자나 재능 있는 우수 여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진로에 낙오를 보인다가나 진로결정 시 결혼이나 가정과 병행하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특히 성역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들(Arnold, 1993; Arnold & Denny, 1985; Grant et al., 2000)이나 남성에 비해 학업이나 진로성취에서 낮은 기대(Arnold & Denny, 1985; Olshen & Mathews, 1987)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우수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도 청소년기부터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조건을 고려하고 가정과 병행이 가능한 직업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회구조적으로 놓여있는 성차별이나

성역할 의식에 덜 참여하여 과거의 여성들처럼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한 갈등을 첨예하게 경험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런 결과는 우리와 외국의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21세기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하정(2007)도 이런 현상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의 성 고정관념이 변화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기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결정을 할 때 부모를 비롯한 자기 이외 타인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즉, 부모나 동료, 선배, 교수들로부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사회적인 평판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인들은 개념도에서 좌측에 위치한 군집들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타인지향(수동) 차원과 관련된다. 이런 결과는 영재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하정, 2007; Chen, 2006; Emmett & Minor, 1993; Grant et al., 2000; Perrone, et al., 2007; Vermeulen & Minor, 1998)와 일치한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지원이나 기대, 타인의 기대 맞추기, 타인의 기대에 대한 민감성 등이 거론되었었다. 하정(2007)은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에는 부모와 조울과 내적 수용단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우수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승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학업우수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진로에서 부모의 기대와 조력 등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져 왔는데(Grant et al, 2000; Kerr & Sodano, 2003;

Reis & Diaz, 1999) 대학생 시기에도 부모들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학교상담자는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을 상담할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직업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욕구와 다양한 직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타인들의 기대와 자기의 욕구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접근도 중요한 상담 내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을 고려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요인이나 군집 평정 점수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요인이나 군집 평정 점수보다 낮게 나타나 이들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의 경우 타인의식이 주요한 고려 차원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인 결정적 변수는 아님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하정(2007)의 연구 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을 자율성의 정도로 구분해본다면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 보인다. 상담 실제에서는 우수 여자대학생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차별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할 때 직업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여건, 자신이 직업에 대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조건을 고려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인 여건은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조건이나 전망,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정을 추구할 수 있는 직업, 자율성을 주고 도전감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직업과 관심분야의 여건과 진로투자 부담 등이다. 직업에 대한 외적조건은 최근 우수 여성들이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우수 여성 인력들이 전문직 그리고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고용시장에서의 불안정과 남녀 간 불균형에 대응하고 있는 것(하정, 2007)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상상력이 부족한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하고 있다는 Kerr와 Sodano(2003)가 지적한 현상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우수 여자대학생이 결정한 직업도 법률가, 외교관, 연구원과 같은 고시를 통해 입직하는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의 외적조건과 대응되는 영역에는 관심 분야의 진로에 자신이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관련된 군집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영향을 받던지 내적동기에 근거해서 진로결정을 하든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분야에 얼마나 자신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역시 진로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학업우수 여자 대학생의 내적인 진로장벽과도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진로장벽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이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개입들이 필요할 것이다.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이 주로 진로를 결정할 때 겪는 어려움이라고 지각한 내용을 추출한 결과 7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7개의 군집에 대한 차원도 영향요인 차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내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이나 타인의 기대, 외적인 직업조건과 내적조건 등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 가장 평정 점수가 높은 군집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의 기대 부응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구체적인 진술문은 완벽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적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이었는데, 이런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예; Emmett & Minor, 1993; Leung et al., 1994; Marshall, 1981; Blackburn & Erickson, 1986). 이들 연구에 의하면 영재들은 완벽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로 호소하였는데, 주로 타인들의 기대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아들은 부모나 교사들의 압력을 느끼고 이는 자신의 잠재력 개발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절하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일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Blackburn & Erickson, 1986).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진로미결정과 상관이 있고(Chen, 2006),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과 상관이 있으므로(Speirs Neumeister, 2004; Speirs Neumeister, Williams, & Cross, 2009) 부모나 타인의 기대로 인해 자녀가 겪게 되는 위기에 대한 고려가 상담실제에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높은 성취 지향이나 경쟁의식은 자칫 작은 실패에도 심리적 좌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우수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수 여자대학생들은 완벽주의 경향이 높아 자신의 수행에 대한 낮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평정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군집들은 ‘진로결정 압박과 선택의 어려움’, ‘투자에 대한 부담과 흥미부족’, ‘불확실한 직업전망’ 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 군집들은 개념도 상에서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진로결정 고려요인처럼 직업 외적조건 차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위 영역에 위치한 군집들은 주로 직업에 대한 개인조건과 관련된 내용들로 배열이 되었다. 이런 직업조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나 어려움은 진로결정 고려요인

의 결과에 비추어서 함께 이해될 수 있다.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에게 직업의 외적조건은 진로결정시 고려는 하지만 참여자가 공감하는 정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직업조건들이 이들의 진로결정 시에 크게 고려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학생으로서 직업에 입문을 하지 않았고 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전문직을 고려하는 상황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을 대처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한 것은 아닌지 추론된다.

좌우 양쪽 차원에 걸쳐서 있는 군집 중 하나가 직장과 ‘결혼생활의 병행 어려움’ 군집으로 나타났지만, 참여자들의 평정 평균 점수는 2.42( $SD=1.00$ )로 나타나 공감하는 정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업우수 여성들이 성역할 갈등이나 결혼생활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Arnold, 1993; Arnold & Denny, 1985; Grant et al., 2000; Schroer & Dorn, 1986)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이 일과 가정생활과 병행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은 하지만 자신의 진로추구에 크게 방해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의 변화에 기인하는 결과일 수 있음과 동시에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고 결혼에 대한 갈등에 직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에 대한 민감도가 약하기 때문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결과는 외국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질적인 연구로 요인들을 추출하고 실제로 참여자들이 얼마나 그런 갈등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양적인 보고가 없어서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Hollinger(1991)는 여성들에 대한 진로상담에 성역할 사회화, 사회적 고정관

념의 영향, 다양한 역할 간의 관계, 의미 있는 타자들의 기대와 관계성 등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직업 아니면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또래들 속에서 진로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진로장애를 축소시키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이후 학업우수 관련 후속 연구에 주는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어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대한 자료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세계를 구체적인 수준까지 보여주는 질적인 연구방법만을 적용한 연구도 고려해볼만하다. 둘째, 학업우수 남자대학생과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도출한 결과가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의 특성에 대한 보다 분명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담개입 또한 집단 특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진로결정과정 고려요인이나 제한요인들을 양적인 연구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아라(2006)의 연구에서 학업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별로 달랐으며 특히 남녀 모두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았는데, 이와 관련된 요인들

을 설정하는데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에 대한 기대, 높은 성취동기와 기타 다른 요인들을 변인으로 설정한다면 진로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양적인 연구를 통해 변인 간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실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하정(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우수자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청소년기 학업우수자였지만 대학에 와서 미성취에 처해있는 여성과 성취를 이룬 여성, 평균적인 성취를 이루는 여성 등 보다 다양하게 대상을 구분해서 이들의 진로결정과정 고려요인들을 파악하게 되면, 보다 대상에 따른 상담개입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우수 여자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기존의 우수 여자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청년기에 이룬 우수 여성들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여성 집단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결정과정의 어려움을 포괄적인 개인내외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심리적이고 발달적 측면에 대한 진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질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양적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도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참여자 시각에 근거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었고, 추출된 요인들이 실제로 우수 여성들

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 정도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학업우수 여자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우수 여자대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고려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을 참여자들 입장에서 조명함으로써 이들의 욕구에 근거한 밀착된 상담개입 전략이나 상담방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업우수 여성들의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는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학교 행정 담당자나 학부모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학업우수 여자 대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법론, 학부모 대상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교육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내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내용이나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심리적 민감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내용들이 이들 우수 여성들에 대한 진로상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임을 알려주고 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15명으로 비교적 적은 표본수와 선발과정의 임의적인 부분이 있어 연구 결과를 우수여성 전반에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개념도 연구는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토론을 중시하는데, 참여자들 여건상 함께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종합하거나 군집을 결정하는데 이들을 참여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차후에는 참여자들이 연구 과정에 일관적으로 참여하고

전체 연구 진행과정기간도 짧게 해서 참여자 시각들의 인식구조들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하는 연구과정상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권석만, 정지현 (2007). 2007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홈페이지 자료실
- 김양희 (2008).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종단연구: 학업우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리 (2006). 학업우수여학생의 진로발달모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유정 (2007). 우수 여자 중학생이 생각하는 일 (재가)의 의미에 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영, 박은영 (2003). 과학영재의 진로의식 변화 연구(1996-2003). 영재교육연구, 13, 95-112.
- 이기학, 이경아, 유나현 (2007). 200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23, 1-27.
- 이아라 (2006). 남녀 학업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심 (2007).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존감 및 진로장벽의 구조모형 검증: 우수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 정 (2007).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근거이론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도연 (2008). 학업우수 여자 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와 진로포부 전통성에 관한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nold, K. D. (1993). Undergraduate aspirations and career outcomes of academically talented women: A discriminant analysis. *Roeper Review*, 15(3), 169-176.
- Arnold & Denny (1985). *The lives of academic achievers: The career aspirations of male and female valedictorians and salutatoria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Blackburn, A. C., & Erickson, D. B. (1986). Predictable crisis of the gifted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4, 552-555.
- Ceci, S. J., Williams, W. M., & Barnett, S. M. (2009). Woman's underrepresentation in Science: Sociocultu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35(2), 218-261.
- Chen, S. J. (2006). *The impact of parental expectations on the career decisions of academically successful and multi-talented. Asian American students*. Columbia University.
- Emmett, J. D., & Minor, C. W. (1993). Career Decision-Making Factors in Gifted Young Adul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4), 350-367.
- Garrison, L. (1993). Professionals of the future.

- Will they be female? Will they be ethnically diverse? *Roeper Review*, 15, 161-164.
- Gassin, E. A., Kelly, K. R., & Feldhusen, J. F. (1993). Sex difference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gifted youth. *School Counselor*, 41, 90-95.
- Goodyear, R. K., Tracey, T. J.,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155-171.
- Grant, D. F., Battle, D. A., & Heggoy, S. J. (2000). The journey through college of seven gifted females: Influences on their career related decisions. *Roeper Review*, 22(4), 66-72.
- Jacobsen, M. E. (1999). Arousing the sleeping giant: Giftedness in adult psychotherapy. *Roeper Review*, 22, 36-42.
- Hollinger, C. L. (1991). Facilitat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gifted young women. *Roeper Review*, 13(3), 135-139.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California.
- Kaufman, F. (1981). The 1964-1968 Presidential scholars: A follow-up study. *Exceptional Children*, 48(2), 164-169.
- Kerr, B. A. (1983). Raising the career aspirations of gifted girl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 37-42.
- Kerr, B. A., & Erb, C. (1991). Career counseling with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Effects of a value-based interven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309-314.
- Kerr, B. A., & Sodano, S. (2003). Career assessment with intellectually gifted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2), 168-186.
- Kline, B. E., & Short, M. (1991). Change in emotional resilience: Gifted adolescent females. *Roeper Review*, 13, 118-120.
- Kruskal, J. B., & Wish, M. (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Beverly Hills, CA: Sage.
- Leung, S. A., Conoley, C. W., & Scheel, M. J. (1994). The career and educational aspirations of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 298-303.
- Marshall, B. C. (1981).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s of gifted and talented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Journal of Career Education*, 305-310.
- Olshen, S., & Mathews, D. (1987). The disappearance of giftedness in girls: An intervention strategy. *Roeper Review*, 9(4), 251-254.
- Perrone, K. M., Perrone, P. A., Ksiazak, T. M., Write, S. L., & Jackson, Z. Vance, (2007). Self-perception of gifted and talented among adults in a longitudinal study of academically talented high-school graduates. *Roeper Review*, 29(4), 259-264.
- Schroer, A. C. P., & Dorn, F. J. (1986). Enhancing the career and personal development of gifted college students. *Journal*

- of Counseling & Development*, 64, 567-555.
- Speirs Neumeister, K. L. (2004).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in gifted college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48, 259-274.
- Speirs Neumeister, K. L., Williams, K. K., & Cross, T. L. (2009). Gifted high-school students'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Roeper Review*, 31, 198-206.
- Terman, L. M. (1925).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In *genetic studies of geniu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Vermeulen, M. E., & Minor, C. W. (1998). Context of career decisions: Women reared in a Rural Commun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230-245.
- 원 고 접 수 일 : 2010. 03. 25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4. 17  
게 재 결 정 일 : 2010. 05. 15

## **Exploration into Factors Influencing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Process: Focusing on Academically Talented High-School Graduates\***

**Son, Jin Hee**

Sun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conceptual structures of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in making career decisions by female college students who were academically excellent at high school and the difficulties which they experienced in the process. Fifteen were recruited and interviewed. Sixty seven factors were extracted as factors considered in career decision and 38 were drawn out as factors restricting their choice of careers. Given the extracted factors, 12 participants classified and rated them again. Multidimensional scal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concept mapping were employed to estimate dimensions in the previously extracted factor. Two dimensions influencing the decision making ; 'Others-Orientedness(Passiveness)/Self-Orientedness(Activeness)' and 'External Conditions-Internal Conditions of a Job.' Given these two dimensions, female college students understood ten clusters considered with regard to their career decision process and seven clusters restricting their choice of career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factors, factors considered in making career decisions,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concept mapping*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RF-2008-327-B00553)